

이덕일의 ‘역사의 창’



역사의 우민화를 경계함

조선 태조 이성계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역사에 아주 밝았다. 태조 2년(1393) 이성계의 이복동생이자 개국 1등공신인 이화(李和)가 궁궐에 들어가려 하자 박자청(朴子靑)이 막았다. 화가 난 이화가 박자청의 면상을 발로 찼어도 막무가내로 들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이화를 꾸짖었다.

“옛날 주아부(周亞夫)의 세류영(細柳營)에서는 장군의 명만 받음 뿐 천자의 조서도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박자청이 이런 것으로서 네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주아부는 한(漢)나라 개국공신 주발(周勃)의 아들로서 세류영을 맡고 있었는데, 문제(文帝)가 방문했을 때도 신부(信符)를 보이지 전까지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참 장군(眞將軍)이구나!”라고 감탄했다는 기록이 ‘한서’(漢書) 등에 남아 있다. 이성계가 주아부 사례를 들어서 이화를 꾸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에 밝았다는 뜻이다.

영조는 재위 5년(1729) 신하들과 ‘동사’(東史)를 진강(進講)했다. 신하가 역사 강

의를 하고 국왕과 토론했다는 뜻이다. 이날 주제는 김부식이 규고를 논한 대목이었다. 규고란 부모가 병이 났을 때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먹이는 것을 뜻하는데, 영조는 “명 태조가 금령(禁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명 태조 주원장이 규고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명나라 강백아(江伯兒)는 병난 어머니에게 자신의 갈빗살을 베어 먹였는데도 낫지 않자 신에게, “어머니가 낫는다면 내 자식을 죽여서 사레하겠다”고 기도했다. 그 후 어머니가 낫자 실제로 세 살 난 아들을 죽여 신에게 바쳤는데 명 태조가 이를 듣고 윤리를 끊은 행위라면서 곤장을 친 후 귀양을 보내고 규고를 금지시킨 것을 뜻한다. 성호 이익은 ‘강백아가 제살을 베어 어머니를 먹인 일’(江伯兒割脛肉)이란 글에서 ‘여동록’(餘冬錄)을 인용해 이를 설명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선의 임금과 신하·신비들이 모두 역사에 해박했음을 말해 준다. 유배지의 다산 정약용이 고향의 지식들에게 조선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

는 임금부터 시골 선비들까지 모두가 알아야 하는 필수 지식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이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강점 직후 한국사 왜곡에 나서는 한편 역사를 일반 국민과 분리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썼다. 자신들이 만든 역사만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역사를 소수의 역사학자만의 전유물로 격하시켰다.

일제가 왜곡한 한국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한국사의 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단군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가짜로 몰아만반한 한국사를 1500여 년 역사로 축소시켰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의 공간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 한국사의 공간에서 대륙과 해양을 잘라 버리고 반도의 역사로 축소시켰다. 그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漢四郡)이,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일본부(任那日南本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의지를 약화시켰다.

해방 후 진일 정산에 실패하고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면서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학교에서 계속 가르쳤다. 이들은 총독부의 역사 우민화 정책을 계승해 역사를 마치 소수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로 것처럼 독점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아직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한사군=한반도 북부설’과 ‘임나=가야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만약 해방 후 대통령과 정치가 및 관료들이 조선 시대처럼 역사에 밝았다면 이런 반역사적인 상황은 벌써 종식되었을 것이다. 역사를 소수의 역사학자들의 전유물로 만든 역사 우민화 정책이 식민사학의 가장 중요한 생존술이다. 아직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소수의 역사학자들로부터 역사를 구출해 모든 국민의 상식으로 만드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식민사학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런 당연한 일들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척추 측만증의 치료



김지현 침담우리병원 척추센터 원장

의 심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수술적 치료의 대상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영유아 건강 검진 발달 검사 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돼 있어 이같이 심각한 수준의 환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척추 측만증이란 척추가 관상면(환자를 정면 앞에서 바라보는 가상의 평면)에서 옆으로 휘고 구부러짐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인체의 중심축인 척추 기둥이 회전하면서 나선형으로 꼬여 나타나는, 뒤뉘림의 3차원적인 복잡한 변형이다.

사전적 의미로 척추 측만증은 옆으로 굽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변형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것을 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엔 그 원인 규명과 치료가 어렵다.

원인은 태아가 때 척추뼈의 형성이 잘 안되거나, 척추 분절이 정상적으로 나뉘지 않은 선천성 이상과 척추 내부에서 발생한 종양, 염증, 신경질환, 근육 질환, 중추 신경 이상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척

추 측만증의 15%만 해당하고, 나머지 85%는 확실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特發性, idiopathic·원인 불명)이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다만 그 발견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아기형 ▲연소기형 ▲청소년기형 ▲성인기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성장과 발달이 가장 많이 되는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척추 측만증 치료에는 먼저 원인 감별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환자의 나이, 뼈성숙 정도, 성별, 구부러진 변형의 크기, 환자가 치료를 받아들이는 정도,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의 원하는 목표 등)를 감안해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관련 서적에는 물리치료를 교정 운동 요법은 측만증에 동반된 유통과 근육의 경직 등이 있을 때 보조적인 방법으로 병행될 수는 있으나 단독 사용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런 이유로 근본적인 치료는 경과 관찰, 보조기 착용, 수술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심한 기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부에선 현수막이나 광고판을 통해 ‘도수 교정만으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한 결과 생긴 측만증이라면 실제 척추 측만증 변형이 아니라 일시적 자세 변화인 경우도 있다. 야니면 추간관 탈출증과 같이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발생, 생리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척추가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통증의 원인은 척추주위 근육 염좌와 동반된 유통이다.

이 같은 경우엔 단순 척추 측만증을 수술하거나 보조기를 차지 않고, 대부분 비수술적인 보존적 방법(안정, 약물 투여, 물리 치료, 운동요법, 그리고 신경 주사 요법 등)으로 치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척추 측만증 환자가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면, 변형을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찰과 의학적 검사들을 통해 반드시 올바른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기고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만난 비로자나불



김병태 대인치과의원 원장

나불은 경상도 지역 사찰에 많다. 철원 도피안사, 경주 불국사, 광주 증심사, 해남 은척사 등에도 비로자나불이 있다.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을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고 한다. ‘적’(寂)은 크나큰 선정이고 ‘광’(光)은 크나큰 지혜의 빛을 의미한다. 고요하게 앉아서 미혹함을 깨닫게 해 주는 불빛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의 사자후인 것이다. 진리의 궁전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깊은 선정과 지혜의 빛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대적광전의 편액이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대적광전 앞에 석등과 탑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흥사지 석등과 화엄사 석등, 개천사지 석등, 흥국사 석등 등은 모두 진리를 발산하는 빛을 상징한다.

보통 불상은 32상 80종호의 모습을 하며 불상을 수인으로 분별하는데 비로자나불은 ‘자관인’(智觀印)을 하고 있다. 왼손 검지를 오른손이 감싸쥐고 바른 손의 엄지 손가락과 왼손의 집게손가락 끝을 서로 대는 손모양이다. 즉, 왼손 검지는 중생계, 오른손은 불계(佛界)로서 중생들을 수행을 바탕으로 깨달음, 즉 득도를 하

게 되면 여래가 된다는 뜻이다. 불이(不二)는 생사도 하나요, 윤후도 하나요, 색공도 하나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며 미혹과 깨달음이 하나의 품임을 뜻하는 것이다. 자관인이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어떤 중생이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회귀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행위 경계에 따라 비로자나불은 때를 놓치거나 기다리지 않고 어느 곳에 알맞게 몸을 나타내어 행동하고 설법하고 자비를 베푼다. 이와 같이 비로자나불은 여러 가지 몸, 여러 가지 명호,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나타내며 잠시도 쉬지않고 진리를 설파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정화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비로자나불 중에서 가장 빼어난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상(국보117호)을 3차원적으로 전시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에 관람을 권하고 싶다. 기획자는 이 지역의 남일 실상사, 곡성 태안사, 장흥 보림사, 화순 쌍봉사와 전국의 구산선문(九山禪門)과 선종(禪宗)을 소개하려고 전시

를 마련한 것 같다.

전시에서는 신라 말기에 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이념이 들어와서 꽃을 피운 불교문화 등을 선보여 천여 년 전의 문화 유산을 보는 새로움을 맛볼 수 있다. 흔하խ수 없었던 선종 관련 유물도 보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시길 바란다.

특히 장흥 보림사 비로자나불은 조성연대(859년)와 조성자(김연경)의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고 천여 년 동안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주재료가 철인데도 어떻게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감탄하게 된다.

사실 필자는 불상을 처음 본 순간 감탄했고, 그 후 불 때마다 새롭고 반갑다.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산이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게 고맙고 자랑스럽다. 화순 쌍봉사의 철갑선사 도윤의 부도와 탑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부도로 관람을 추천한다.

필자는 의향 광주의 광(光)자가 비로자나불이 발산하는 진리의 빛(光)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항상 진리가 머무르는 도시, 광주(光州) 말이다.

社說

농지 면적 갈수록 감소 식량 주권 포기했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량 농지들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해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12만6000ha나 감소했다고 한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농산물 생산을 조절해 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화 현황 자료(2007~2016년)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11%나 감소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98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말 99만3700ha로 줄었다. 제주는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됐으며, 지역별로는 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에서 14% 등이 각각 줄었다.

농림부는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끝자로 하는 농지법을 공포했

다. 당시 식량 문제는 중요 과제였고, 환경회의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앞둔 시점이어서 농지 공간 보존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으로 묶어 용도변경을 어렵게 했던 것이다. 지자체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이 큰 폭으로 해제·변경됐다고 한다. 여기에 농촌 지역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농지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농업진흥지역의 감소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농지 감소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면 농업 종사자 또한 줄어들고, 나아가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경고한다. 어떤 경우이든 농업의 필수 요소인 농지 면적은 최대한 지키는 농정을 펴야 할 것이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지역의 미래 고려해야

광주 지역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재정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등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위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선거구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광주 동구와 남구가 합쳐져 동남구와 동남읍으로 재편됐고, 북구갑과 북구을도 몇 개의 동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과거 14개 동이었던 북구갑은 8명의 기초의원을, 13개 동이지만 인구가 많았던 북구을은 10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으로 17개 동이 된 북구갑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반면, 오

치 1·2동과 임등을 북구갑에 떼어 준 북구을은 줄여야 할 형편이다. 기초의원 수는 인구와 법정등록 수를 토대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자치구 간 인구 및 재정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동구 인구는 9만6458명으로 북구(43만9028명)나 광산구(40만4301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 규모도 동구는 북구와 광산구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행정구와 선거구 불일치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총선 직후 광주시가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논의는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했다. 자치구별로의 편이 다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실을 따지는 정치권의 비협조 탓이다. 하지만 자치구 간 경계는 정치 논리가 아닌 주민 편의, 행정의 효율성, 균형 발전, 지역의 미래를 고려해 조정돼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졸속으로 개리멘타링을 반복하는 구태는 이전 없어져야 한다.

無等鼓

우주만큼이나 인간이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공간은 심해다. 바다 밑 세상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한 세계 각국의 탐사 경쟁은 지금껏 보지 못한 신기울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심해 보행 로봇 ‘크랩스터 6000’을 개발해 4743m

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사실 미지의 심해 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자산인 바다를 잘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남획으로 인한 황폐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최근 우주추출물 들어서는 연안 양식 시설과 폐어구, 버려지는 쓰레기, 국적 불명의 인공 구조물로 인한 경관 훼손도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바다

명품 바닷가

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3년 전 미국·영국의 해양생물학자들이 8145m, 올해 4월 중국 연구팀이 8152m에서 찍었는데, 이를 모두 경신한 것이다. 중국은 심해 탐사 유인 잠수정인 자오롱호를 제작, 인류 최초로 6700m 깊이까지 잠수했는데, 이로써 전세계 해저의 99.8%를 탐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음 등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문제

인 정부 출범 후 첫 프로젝트로 ‘아름답고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한다. 자연경관만 놓고 보면 외국 그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바닷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 그 취지다. 이제 인공 구조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바다와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어민은 물론 유관기관, 지자체 등도 함께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배에 달하는 44.3만㎢의 배타지역 경제수역(EEZ)과 공해에서 가치 있는 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예부터 엄청난 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기자인사실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